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이슈포럼

“우리가 꿈꾸는 노동”

2018년 11월 2일(금) 19시 30분

100주년사회봉사관 예배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순서 및 목차

1. 인사

/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2. 노동하는 청년, 일과 직업을 바라보다.

/ 김동춘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 3쪽

3. 청년 노동의 오늘과 내일

/ 나현우 기획팀장 #청년유니온 ----- 12쪽

4. 종합 토론

/ 다함께

발행일 | 2018년 11월 2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편 집 | 김현아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노동의 신학과 노동윤리

- 일에 대한 신학적 관점 -

김동춘 교수_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I. 노동의 일반적 의미

1. 일(노동)이란 무엇인가?

- 1) 넓은 의미에서 일(노동)이란 생존과 생활을 위한 인간의 ‘활동’(活動)이다.
인간에게 노동은 **살아있음을 뜻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다. 노동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의미하며,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 2)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은 생계수단으로서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생산활동을 벌이면 서 생산물의 결과에 따라 임금을 받거나 이윤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노동의 3가지 차원

생물학적 차원: 호구지책(糊口之策), 의식주(衣食住)의 해결책으로서 노동
노동 사회적 차원: 인간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노동
문화적 차원: 노동을 통한 창조적 행위, 생산물을 통한 성취감과 존재감

1). 생존과 생계로서 노동

- 노동은 일차적으로 생존(生存)과 생계(生界)를 위해 필요하다.
노동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가족 부양,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수단이다. **노동은 생계수단이므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이고, 누구나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노동은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일터(일자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밥 그릇 싸움인가 : 권리로서 노동인가, 경쟁으로서 노동인가?

- 생계형 노동은 허구이다 : 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돈을 벌기위해 일한다.

2). 자아실현의 장(場)으로서 노동

- 노동은 단지 생존과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성을 발현하는 통로이다. 일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소양, 자질,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다. **인간은 노동의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 행복감을 주는 도구이고, 자기실현이다.** 노동의 기쁨과 보람은 창조적 노동일 때, 가장 최고의 보상이요, 기쁨이 된다.
- 생계수단으로 출발한 노동이 자기실현의 노동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시작한 노동이 생계노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생계 노동은 의미없는 노동이고, 창조적 노동은 항상 본래적인 노동만이 아니다.

3). 사회적 활동으로서 노동

- **노동하는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다.** 노동은 직장에서 동료 인간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시민, 민족, 국가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 노동이 수행되는 인간의 일터(노동의 무대)는 그의 사회적 활동공간이며, 상하관계와 수평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연대, 친교,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다.
- 인간은 사회적 인격을 보유하며 삶을 영위한다. 명함에 찍힌 직책(職責, status)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감의 표현이다. 노동하는 인간일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살아간다: 비정규직의 비애.

II. 노동의 신학적 의미

1. 노동은 인간에게 부여된 위임(commission) 혹은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다.

- 1).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의 **창조세계를 경작하고(cultivate), 돌보고(care), 관리하고, 경영하도록(management) 위임**하셨다(창2:5-8, 15).

- 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은 가정(familia생육과 번성), 국가(politica지배와 다스림), 경제(economica노동과 경영)다.
- 3). 창1:28의 ‘땅의 지배’(dominium terrae)¹⁾는 다른 피조물을 폭군처럼 지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임금이 백성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이 땅의 재화(財貨)를 일구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땅의 지배(경작, 개발, 창조행위)를 통해 문화적 행위에 참여하며, 자연물을 관리, 경영하는 주체가 된다. 동시에 인간은 그들을 ‘동료 피조물’로 대해야 한다.
- 4). 노동은 인간이 자연을 경작하고 다스림을 통해 역사와 사회, 즉 문화를 이루어나가는 총체적인 활동이다. 노동의 위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에 개입하라는 요구이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행위이다.
- 5).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은총에 따라 자연(nature)과 역사(history)안에서 다양한 노동행위(경작, 개발, 변화, 보존)를 통해 하나님의 위임명령을 수행한다-그러나 문화명령안에 담긴 근대의 주체중심적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6). 일(노동)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의 일부이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일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일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2. 노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다.

- 1).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자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존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인간의 삶과 활동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의 직무를 (대표적, 대행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1)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

- 3). 인간의 노동은 동료 피조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획과 구상, 의도, 실행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리하여 정의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3. 교정되어야 할 노동에 대한 신학적 오해

1). 노동은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형벌과 저주가 아니다.

- a). 창1:28에서 바라본 노동은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위임된 것이다. 노동은 처음부터 인간의 본래 상태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 b). 창3장에서 바라보는 노동은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저주라는 소극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해석하면 일이 축복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타락으로 노동은 생존을 위한 고역이 되고, 비인간적 경쟁과 착취의 결과물이 되고 만다. 이제 노동은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아니라 생계와 보수(報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억지스런 의무로만 남게 된다 : 출산, 육아.

천국은 이런 형벌적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주는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다.

- c). 노동은 죄의 저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은총아래 있어 죄의 억제와 잠재력의 발현(창조적 노동)을 통해 신적 은혜의 영역안에 있다.
-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전5:18).

2). 하나님은 영원속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working God)이다.

- 노동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일부이다.

6일간의 창조사역은 ‘수고로운 노동’이며, ‘노동적 활동’이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노동없이 이루어진 비활동적 창조로 간주하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the unmoved mover)의 신 개념이다. 무(無)운동적, 비(非)활동적 신관은 성경적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적이며,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에 근거한 존재론적 신관이다. 만일 기독교가 말하는 신적 본질에서 활동성과 운동성을 제거

하고 관조(觀照)와 무감정(無感情apatheia)의 신 개념이 강조된다면, 이는 성경에서 계시되는 바, 인간의 역사와 현실속에 참여하고, 개입하시며, 활동하시며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개념이 배제될 것이다.

- 영원안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최초의 모습은 '창조적 일'(creational work)이다. 하나님의 최초의 자기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일을 마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며 기뻐한다.
- 6일간의 창조활동 후 쉬을 가지셨다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증한다(창 2:2-3).

3). 예수 그리스도와 노동 :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현설적(docetic) 주님이 아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실 뿐 아니라 인간적 조건을 취하시고, 노동하는 인간으로 사셨다.

(1). 일하시는 예수님 :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

노동자 예수 :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막6:3).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일하셨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쉬셨다.

(2). 일하는 자들의 쉬을 보장하시는 예수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겨를도 없음이라"(막6:7-13, 막6:30-31). 예수님은 노동 착취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의 쉬을 보장하신다.

4). 영육/성숙 이원론은 노동 혐오적 신앙인을 조장한다.

a) 안식일과 노동: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5-30). 이 본문을 노동신학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노동의 굴레와 착취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자유와 인식을 선포하시는 메시지이다.

유대교 종교권력자들은 안식일의 형식적 준수에 초점을 맞춰 안식일의 본래 취지인 노동하는 인간의 인권과 사회보장법적 본질을 곡해하여 노동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보다 인간보호이 먼저라는 혁명적 발상을 제시하여 안식일 노동을 통해 이웃에게 선을 발휘하셨다. 노동없는 안식일이 인간을 더욱 비인간화한다면 잘못이다. 노동이란 그 행위를 통해 이웃에게 선을 제공하는 행위라야 한다.

- b). 묵상, 예배, 금욕을 강조하고, 일을 멀리하려는 종교인들: 거룩한 예배자들은 거룩한 게으른 자들이 아니다.
- 말씀 듣는 마리아는 **관상하는 삶**(*vita contemplativa*, 기도, 묵상, 예배)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대받고, 부엌에서 음식준비와 설거지하며 손대접하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는 **활동하는 삶**(*vita activa*, 노동, 일, 행위)을 대표하는 열등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전통에서 인식되었다.³⁾
 - **피로사회**는 근대적 개발과 성장이데올로기, 직선적 시간관으로부터 휴식과 멈춤, 명상적 삶을 말하려는 것.
 - 예배에 목숨 걸지 말고 노동하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
 - 목회자, 신부, 수도원의 생활리듬과 매일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직업인의 삶은 다르다!
 - 선교사 바울의 노동원칙: 노동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복음전파에 힘씀(행18:2-3)⁴⁾.
 - 성경인물들은 대부분 종교적 관상가(觀想家)들이 아니라 당대의 도시와 문화의 중심지, 국가의 정치무대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이었다.
 -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ora et labora): 명상과 노동의 베네딕트회(Benedictine Order)의 규칙.

3)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8,10).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여...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3:12)

4)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행18:2-3)

4. 노동과 소명: 직업의 도구로서 노동

1). 루터의 직업윤리

(1). 소명(Beruf, vocatio): 부르심의 이층구조를 철폐하고,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직업 소명설

“당신의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일치하는 이곳 땅위에서의 소명이라 여기며 행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간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일을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위와 일에 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종심과 일의 원천이라 할 말씀과 신앙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지위와 삶을 경시해서는 안된다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 금욕생활을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로 보이는 것 같고..반면에 아내자가 요리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의 가사 노동은 하찮은 일처럼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거기에 있다.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일은 수도자들이 금욕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탁월한 것이다, 수도자들의 (자기 공로적인)행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사 노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루터 선집. V. 102)

(2). 성직에로의 부르심을 직업소명으로 전환함.

- 종교영역에 제한된 소명을 세속 직업의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부르심의 성스러움의 의미를 세속화시켰을 뿐 아니라 세속 직업으로의 활동을 신적 부르심으로 간주함으로써 직업의 성스러움의 의미를 덧입혔다. 이것이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려내심을 받았으며, 동시에 세상속으로 말과 행위를 통한 증언의 삶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 루터의 한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전7:20). 현재의 직업에만 소명으로 제한할 위험이 있거나 현존하는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영구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었다. 개개인이 마치 어떤 특정 직업인으로 부르셨다는 오해를 제공한다. 특정 직업에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지 않고, 주님은 모든 직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 직업의 교체: 요셉의 직업 변천: 목동-노예-가정 노예-가정 청지기-모범죄수-현명한 해몽가-지략이 뛰어난 경영자, 곡물중개인(무역업자)-입국관리인-위기상황 지략가-토지 매매 중개인.

2). 칼빈의 직업윤리

-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soli Deo gloria).
- 세계내적 금욕과 직업윤리: 직업은 영혼의 수련도장이고 종말론적 결산의 태도로 살아가게 한다. 막스 베버의 노동윤리

III. 노동의 사회적 문제

1. 거래(교환)로서 노동

- 1). 노동의 공간은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을 요구하는 사람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노동력(육체노동, 기술노동, 지식노동, 감정노동)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자본(capital)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사들이며 생산활동의 결과물로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가(기업주)로 구분된다.
- 2). 노동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본없는 인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판매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하여 (그에 상응하는)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임금을 제공한다.
- 3). 자본의 시장과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자본가의 임금(자본의 투자)과 노동자의 노동력의 교환과 거래행위는 냉엄하게 이루어진다: **백지수표, 로또의 허구**

2. 노동과 물화(物化), 노동과 소외(Entfremdung)

1). 여기서 노동하는 인간은 인간의 가치가 그의 노동력과 임금능력에 의해 결정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힘당하고 인간은 물화(物化)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하는 인간가치가 평가되지 않고, 그가 지니고 있는 노동력, 노동의 결과물, 노동의 확장성 등 기능성이 상품으로 평가되어 인간성이 물화된 존재로 전락한다(스카웃, 연봉, 밀어내기). 우리는 육체노동자들(블루칼라)이 인력 시장에서 개인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사무직, 전문직, 지식노동자(화이트칼라)에게는 노동의 시장 거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시(錯視)이다.

2). 노동과 소외 : a). 노동의 성과로부터 소외. b). 자기로부터의 소외, c).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노동의 소외는 노동과정이 자본가적 생산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K. Marx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의 관계로 표시되는 상품세계에서의 소외와,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것, 노동이 바로 사용가치가 되어버리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서 나타는 소외를 문제시한다.

3). 노동의 존엄성과 인간성 : 노동은 그 결과에 따라 화폐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를 단순한 상품이나 생산도구로, 그리하여 물질적 가치를 지닌 노동력으로 환산하는 물질주의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노동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노동이 인간보다 우선되지 말아야 한다. 노동이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3. 착취와 억압으로서 노동

1). 모든 자본가는 최소한의 자본투자를 통해 최대한의 노동 가치를 얻으려 하고, 노동자는 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많은 임금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본가는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다. 자본과 노동 시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수평관계는 불가능하며, 여기에 갑을관

계, 주종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회가 공정하지 않을수록, 노동자의 인권이 확보되지 않을수록 자본가와 노동자의 갑을관계는 공정거래가 아니라 약탈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 : 생산과정에서 노동은 주요 동인(動因)이지만, 생산수단의 총합인 자본은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일 뿐이다.(가톨릭사회교리, 223).

자본과 노동의 적대관계로부터 상호 보완관계로: “자본은 노동없이 있을 수 없고, 노동은 자본없이 있을 수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224).

2). 기업주의 횡포가 자본의 힘으로 불법적으로 표출된다. 노동자에게 굴종을 요구하며, 승진, 직위보존에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회사는 공정한 이성적인 합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주앞에서 굽신거리는 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사원들간의 경쟁유발, 굴종적 업무수행을 요구하게 되며, 사원과 기업주간의 공동체적 삶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 영혼을 팔아넘긴 기계적 노동 인간을 양산한다.

3). 노동현실에서 희생양 메커니즘

회사 공동체를 위해 폭력적인 희생, 강요된 희생을 요구한다(부당한 요구에 침묵, 굴종을 요구한다. 회사를 위해 감봉, 면직, 퇴직을 요구한다).

소위 봉사, 섬김,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과 공동체에서 노동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만을 빨아먹는 은밀한 노동수탈이 진행되고 있다.

- 교회 사역자, 선교단체, 기독NGO 간사

IV. 직업과 기업에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

1. 노동관에 대한 편향된 관점은 교정되어야 한다.

1). 자본가 중심의 노동관

자본가, 기업주, 경영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노동관이 있다. 이 관점은 주로 파이를 키

워야 많이 나눌 수 있다. 회사가 무너지면 회사원도 죽는다. 사익적(社益的) 입장을 대변한다. 회사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1%의 천재가 99%를 먹여 살린다?’(이건희) 그러나 삼성의 최대 이익결산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특별임금과 보너스 지급 등으로 그들만의 자축이 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이 관점은 특정한 소수에게 부를 집중하도록 만들며, 빈부격차를 몰고 오게 한다. 한 사회의 소수 특권층만이 배불리 먹고 행복을 누리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다수 노동자들은 빈곤과 소외가 커져간다면, 이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다.

미국적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회사는 당연히 사업주의 개인 소유이므로 그의 이익창출에 집중한다고 사고한다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사고는 회사, 노동자의 연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에서는 사업주의 사익보다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사고한다. 사회형성에서 특정 개인의 자본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관리를 중시하므로 자본가의 횡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북유럽은 개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노후와 은퇴자, 설사 실업자가 되더라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2). 청지기적 노동관

청지기 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앞에서 정직한 노동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제시한다. 요셉은 청지기적 노동자의 표상이다. 청지기 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의 신실성을 요구한다. 바울은 노예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권고 한다. 이것은 당시의 노예계급사회의 땅에서 자행되는 지배와 억압의 주종관계를 넘어서서 ‘혁명적 복종’의 신앙을 가지고 인간행위의 최종적인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는 노동자로 살 것을 교훈한다.

그러나 청지기 노동관은 한계가 있다. 이 윤리관은 마치 인간이 노동환경에서 상당한 자유의 여백이 주어진 것처럼, 자율성과 선택의 융통성이 있는 듯한 착각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 노동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 사람들, 자원들, 환경, 노동의 여건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여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자극을 주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듯이 일하도록 도전을 준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노동관은 주어진 노동환경을 탓하고, 그런 환경의 악조건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비판의식과 냉소적인 태도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3). 노동자 권익보호주의는 항상 기업과 적대적이라야 하는가?

- 갈등주의 노동관 : 노동세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과 갈등관계로 설정하여 자본가를 착취적인 인간으로, 노동자를 억압당하는 희생물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노동세계안에 내재된 계급적 갈등, 착취와 억압의 구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
- 기업가, 경영자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고, 양자간의 협력과 연대적 관계모델이 필요하다.
- 기업은 단지 소유주의 이윤창출을 위한 사익(私益)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국가와 함께 기업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공적인 기관이다. 기업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익(公益)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나라의 외적 기관이다.

2.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의 기초적인 문제

1). 인권의 차원에서 노동윤리가 다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시혜적(施惠的) 방식이나 구호주의적(救護主義的) 방식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의 인권과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보장, 시급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성경의 관점은 가난한 자, 즉 일용 노동자들(품군)에게 정당한 임금을 체납하거나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명시한다(신24:15;창31:41;약 5:1-5)⁵⁾. 노동자는 성경계시의 중심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있다. 출애굽

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신24:15);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번이나 번역하였나이다(창31:41).

(Exodus)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이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노동자에 대한 바른 대우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이며, 권리의 문제이다.

2).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오도된 처방

- 목회주의적 처방 : 당신의 고통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설교조의 처방은 자칫 돌팔이 의사의 처방전이 될 수 있다.
- 도덕주의적 처방 : 이런 사태를 개인의 게으름이나 불성실만으로 돌리는 것.
- 사회분석적 접근 : 관찰/분석-해석-실천적 방법

3). 노동자의 노동윤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노동의 자리에서 “주께 하듯” 할 것을 요구한다(골3:22-4:1). 달란트 비유 등은 노동자의 성실함을 강조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편에서 말하고 있지만,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행해야 할 권고를 주고 있다.

4). 그리스도인 기업주들(CEO)의 바른 태도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업은 교회가 아니며, 회사는 예배당이 아니다.** 예배당이 기업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기업(회사)이 또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영역주권론 sphere sovereignty).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창출과 그로 인한 인간 복지의 증대에 기여하는 고유의 영역으로 부르심이 있다.

5). 노동과 쉼(안식)

노동 이후 쉼은 인간이 노동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굴레로부터 인간 해방을 외치는 자유의 선포이기도 하다. 안식일은 예배와 인권보호의 두 측면이 있다. 쉼을 주지 않는 노동은 노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형벌과 저주가 되게 한다.

6). 대안적 노동사회의 창출을 모색하자.

약자들이 노동의 착취와 억눌림으로부터 신음하지 않도록, 노동하는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비인간화된 노동구조를 대항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시장경제

정리

노동 : 노동이 무엇인가?

- 1). 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생계에 필요한 수단이다.
- 2). 노동은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구차하게 구걸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게으른 삶과 그로 인한 빈곤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3). 노동은 일정한 부를 생성하게 하게 한다. 그리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노동해야 한다. 노동은 선을 발휘하는 적극적 방식이다 (엡4:28).
- 4). 노동은 인간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통로이다.
- 5). 노동은 직업, 즉 일자리의 도구이다.
- 6). 노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편이다(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10:31).

(끝)

청년 노동의 오늘과 내일

나현우 기획팀장_청년유니온

들어가며 : 당신의 노동의 오늘은?

1. 청년의 오늘, 한국 사회의 노동

- 1)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 2) 열악한 노동인권 현실
- 3)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 4)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 대체 왜?

2. 청년 실업, '못 난 개인'이 아닌 '못 된 시스템'의 문제

- 1) 청년 실업률 10.5% (통계청, 2018)
- 2) 9급공무원 경쟁률 40.9 : 1
300인 이상 대기업 경쟁률 38.5 : 1
- 3) 청년들의 공공, 대기업 '선호'는 자신을 위한 당연한 선택?
- 4)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닌 일자리 전반의 질 향상이 필요

3. 일터의 권력불균형 : 저당잡힌 미래

- 1) 구의역 사고, 그 후 2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살인사건
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넷마블 : 2016년 직원 4명 사망, 임금채불, 법한도 근로시간 초과
tvN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 하루 20시간 노동을폭언과 폭력 속에 견디는 청춘
- 2) 남성 중심의 기성사회
만연한 성희롱
직장 내 '위계' 낮은 직급일수록 높아지는 성희롱 피해
압도적인 여성청년의 피해 비율

3) 열정페이 계산법

열정이 있다 + 재능이 있다 + 재주가 있다 =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

“거 참 월급 좀 늦게 줄수도 있지”

아무리 야근을 해도 받는 수당은 그대로? : 포괄임금제

4)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 + 청년이라서 겪는 불합리함

4. 사회 안전망 부족 : “안은 전쟁터, 밖은 지옥?”

1) 제 3의 선택, 니트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 청년의 선택지

대기업, 공공

문지마 취업

아몰랑 (비구직 니트족)

3) 생애주기? 그게 뭐임?

미혼기 신혼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학령기 자녀성년기 자녀 독립 및 은퇴

학자금 대출 구직난 실직 위험 전월세난

4) 안은 전쟁터, 밖은 지옥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좋은 일자리(공공, 대기업)를 향한 경쟁 심화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 (문지마 취업)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남는 것, 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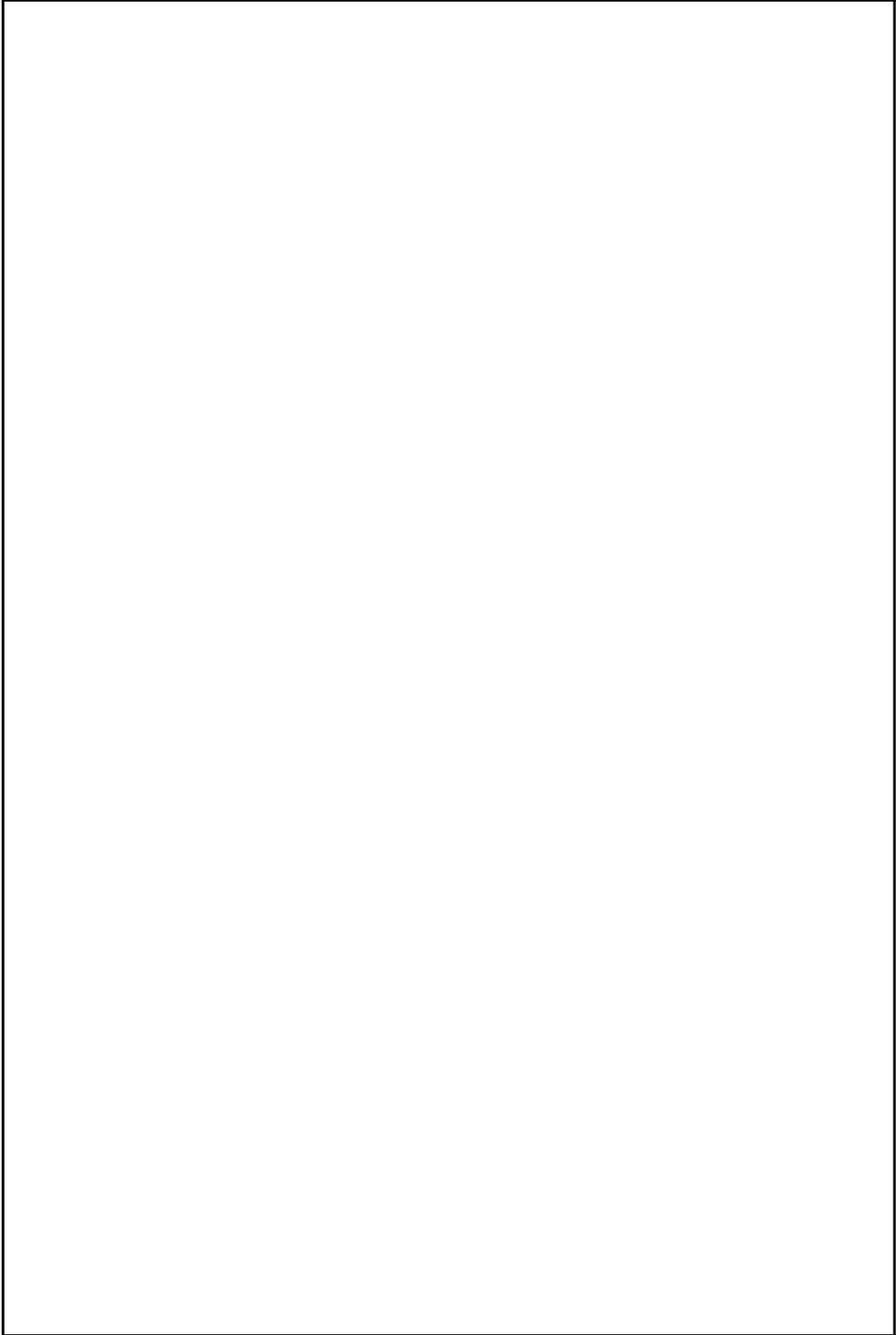
→ 선택이 아닌 특권이 된 생애 주기에 따른 삶

5. 청년의 내일 : “광장 밖의 청년” 목소리를 내다.

1) 조성주 정의당 대표 출마 선언문

2) 청년 유니온 창립 선언문

나가며 : 다시, 당신의 노동의 오늘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윤실 주요 운동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2018년에는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표어로 정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세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안내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02-794-6200 (김현아 팀장)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와 오른쪽 QR코드에 접속하여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가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www.cemk.org